

## 셸리의 자연관: 「서풍에 부치는 송시」에 나타난 필연성

이 일 재  
(전북대학교)

Lee, Iljae. "Shelley's View of Nature: Necessity in 'Ode to the West Wind'."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4 (2021): 171-187. Nature was regarded as pure matter by the development of natural science in Shelley's age. Thus Romantic poets could no longer look for the nature spirits on the farther side of appearances. Instead, they tried to look for them within themselves. So did Shelley. Shelley's view on nature is well put in his idea of Necessity. The doctrine of Necessity primarily rests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an undeniable relationship between two entities or one entity and its modes. Shelley adhered to his belief in Necessity from his first major poem, *Queen Mab*, to his last poem, *The Triumph of Life*. The idea emphasizes the poet's freewill and responsibility for the community. It is 'Ode to the West Wind' that proposes this kind of Necessity strongly. This paper aims to study nature through the idea of Necessity in 'Ode to the West Wind'. In this poem, Shelley recognizes a poet's responsibility for his society by reading 'Destroyer and Preserver,' the double properties of Necessity with his imagin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Shelley, Nature, Necessity, Ode to the West Wind, Poet's Freewill

### I. 서론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는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에게 부여되는 시대정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낭만주의 2세대로서, 낭만주의 1세대의 특성을 공유한다. 주지하다시피, 낭만주의자들의 공통된 찬미의 대상은 자연이다. 그들은 산

업자본주의로 인한 물질숭배가 팽배한 당시의 세계를 타락한 곳으로 간주하고, 그것과 다른 순수한 영역으로 자연을 정의하면서 자연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찬미의 대상이 된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 아닌, 시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재탄생된 자연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낭만주의 시인들은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사회적·정치적 지형의 변화를 자세하게 목격한 최초의 시인들이었다(Heyck 193). 그들의 진단에 따르면, 자연과학의 발전을 토대로 형성된 과학 문명은 전반적인 산업체계를 변화시키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인간의 비인간화와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였다. 또한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야기시켰다. ‘자연’은 구체적 대상이 아니라 순수 물질의 차원에서 정의되기에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학은 자연현상을 물리적 성분과 원인으로 분석해냄으로써 구름, 비, 무지개와 같은 ‘자연’을 아름다움과 신비를 주는 구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감각한 추상적 물질로 만들어 버렸다(Abrams 307). 이러한 점 때문에, 낭만주의 시인들은 과학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추상적 물질로 인식되는 그러한 자연에게서 더 이상 감동을 받을 수 없었던 낭만주의 시인들은 소위 “자연의 정령”을 이제는 외부현상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Barfield 44). 그들은 상상력에 의해서 주관화된 자연을 구현함으로써 자연에게서 비진과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어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나뭇의 방식을 통해서 자연을 여전히 찬미하면서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려고 하였고, 그것에서 도덕적 위안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 결과 자연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유기체”가 될 수 있었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유기체적인 인식은 인간 본연의 심성을 회복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반영한다(Heyck 261).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는 모든 자연물에 신성이 내재해있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종교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셸리의 자연관은 워즈워스의 이러한 범신론적인 자연관을 수용하면서도 그 나뭇의 독특한 형태를 가진다. 워즈워스는 여러 형태의 자연의 형상들 중에서 특히 아름다운 면들을 강조하면서 자연은 인간에게 결국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김철수 74). 한편, 셸리는 자연의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작용을 끌어내는 인간의 의지에 역점을 둔다. 워즈워스가 자연 앞

에서 인간의 “현명한 수동성”을 강조했다면(‘Expostulation and Reply’, I. 24), 셸리는 좀 더 인간의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셸리의 이러한 자연관은 그의 필연성(Necessity) 사상에 들어있다. 필연성 사상은 두 실체(entity) 혹은 한 실체와 그것이 나타나는 양상(mode) 간에 부정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Amjad 103). 필연성에 대한 개념은 그리스에서 유래하여, 계몽주의 시대에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셸리 시대의 과학적·역사적 사고방식에 기본을 제공하는 틀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필연성은 셸리의 사고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고, 그는 이러한 필연성 사상을 끝까지 고수했다<sup>1</sup>. 1815년에 쓰여진 그의 첫 번째 장시인 『맵 여왕』<sup>2</sup>(*Queen Mab*)에서부터 같은 해의 『알라스터 또는 고독의 정령』(*Alastor; or The Spirit of Solitude*), 1816년에 쓴 「몽블랑」(‘Mont Blanc’)과 「초감각적인 미에 부치는 찬가」(‘Hymn to Intellectual Beauty’)<sup>3</sup>, 「서풍에 부치는 송시」(‘Ode to the West Wind’), 『사슬에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 그리고 미완의 마지막 시인 「삶의 개선 행렬」(‘The Triumph of Life’)에 이르기까지 셸리는 반복적으로 필연성에 천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서풍에 부치는 송시」에 나타난 필연성 사상을 통해서 셸리의 자연관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셸리의 필연성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감과 실천을 끌어낸다는 것을 확인해볼 것이다.

<sup>1</sup> 그라보(Carl Grabo)(117), 베이커(Carlos Baker)(60), 화이트(Newman White)(438)같은 평자들은 셸리가 필연성 원리를 버리고, “자연의 법칙” 혹은 필연성에 대립되는 개념인 “사랑의 법칙”을 그의 사고의 핵심으로 삼았다고 본다. 또한 힐(Desmond King Hele)은 「맵 여왕」 후에 셸리는 필연성이 쓸모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그 후의 작품에서 필연성 개념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다(39). 한편, 긴저리쉬(Solomon Gingerich)와 블룸(Harold Bloom), 암자드(Fazel A. Amjad)는 셸리의 사고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셸리가 필연성 사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본다.

<sup>2</sup> 셸리의 글 인용은 잉펜(Roger Ingpen)과 켈(Walter E. Peck)이 편집한 『셸리 전집』(*The Complete Works of Percy Bysshe Shelley in Ten Volumes*, New York: Gordian Press, 1965)을 참고하며, 산문은 권수와 쪽 번호를 인용문 뒤에 표기하고, 시는 제목과 행만 표기하겠다. 그리고 시 인용문에 밝힐 시의 제목은 약호를 사용할 것이다. 「맵여왕」은 Mab으로, 『알라스터 또는 고독의 영』은 A로, 「서풍에 부치는 송시」는 Ode로, 「초감각적인 미에 부치는 찬가」는 Hymn으로 표기한다.

<sup>3</sup>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으로 설정되고 있는 존재가 감각적으로 접근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Intellectual”을 초감각적인 의미로 파악한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을 「초감각적인 미에 대한 찬가」로 해석한다.

## II. 본론

「서풍에 부치는 송시」는 셸리의 짧은 시들 중에서 가장 예언적인 시라고 평가 받는다(Bloom 65). 셸리는 이 시에서 “현재 속에서 미래를 보는” 예언자라는 시인에 대한 그 자신의 정의를 극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Defence of Poetry’, VII, 112). 1819년 가을에 쓰여진 이 시에서 셸리는 이전 시들에서 다루었던 자연의 실제 파악에 관한 주제를 반복하고 있다. 자연은 셸리 그 앞에 놓여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시인의 사명감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서풍에 부치는 송시」에서 제시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시인의 의지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자연의 실제에 대한 셸리의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들에서 추적되고 있는 그의 필연성 사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의 시대에 대한 셸리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비판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시인으로서의 그의 출발은 과학과 과학을 토대로 한 진보사상, 특히 이성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성과 과학적 인식에 대한 그의 믿음과 이것을 반영하는 셸리의 초기 필연성 사상은 그의 첫 번째 장시인 『뱀 여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 6편에서 셸리는 필연성 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혼란의 어떤 원자도  
 뚜렷하지 않고 필연적이지 않은 일을 완수하지 않고,  
 반드시 행동해야 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은 적이 없다.

No atom of this turbulence fulfills  
 A vague and unnecessitated task,  
 Or acts but as it must and ought to act.(*Mab* VI 171-73)

자연계의 모든 것은 필연성 법칙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 필연성은 자연계의 사물을 지배하는 자연법의 질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계몽시대의 대표적 사상가이며 유물론자인 홀바흐(Holbach)의 영향을 보여준다. 홀바흐는 “자연은 필연적으로 행동하고 존재한다. 자연은 살아서 활동하는 전체이고 그것의 부분들은

활동, 생명, 그리고 존재를 필연적으로 유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Cameron 재 인용 430). 이러한 주장은 셸리의 필연성과 닮아있다. 홀바흐의 필연성 개념의 토대는 고전적이고 결정론적인 인과론인데, 이것은 셸리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인과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대상들이 지속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고 다른 대상에서 한 대상을 결과적으로 추론해 낼 뿐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가 들어맞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필연성이 있기 마련이다.

But the only idea that we can form of causation is a constant conjunction of similar objects, and the consequent inference of one from the other : wherever this is the case necessity is clearly established. (Notes to *Queen Mab* I 145)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추론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원인’이 되는 자연의 질서에 복종하면, ‘결과’로써 얻어지는 인간의 행복은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셸리는 초기에 전통적인 인과론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필연성 개념을 수용하였다. 그것이 인간을 필연적으로 이롭게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 사회적·정치적인 모든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성을 기반으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이 몰고 온 부정적인 결과들을 지켜보면서, 셸리는 전통적인 인과론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셸리가 필연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모색의 과정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시인의 적극적인 인식을 요구하고, 또 그러한 인식이 시에 담겨져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서풍에 부치는 송시」가 셸리의 자연관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시에서 셸리가 변화된 세상을 향한 시인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위즈워스식의 자연에 대한 인간의 “현명한 수동성”을 수용했던 태도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인과론에 대한 셸리의 변화된 견해를 토대로 한다. 이것은 셸리의 산문 「생명에 대하여」(‘On Life’)에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원인이란 두 가지 상념이 서로 관계를 갖는다고 이해한 경우 그 관계방식에 대한 인간 정신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일 뿐이다. 이런 큰 문제에 대해 통속 철학이 얼마나 불충분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은 다양한 상념이 자신의 정신 속에서 펼쳐질 때 그 전개 방식을 아무런 편견 없이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But cause is only a word expressing a certain state of the human mind with regard to the manner in which two thoughts are apprehended to be related to each other. If any one desires to know how unsatisfactorily the popular philosophy employs itself upon this great question, they need only impartially reflect upon the manner in which thoughts develop themselves in their minds. ('On Life' VI 197)

원인이 관계방식에 대한 인간 정신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일 뿐이라면, 원인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정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자연의 정령을 '원인'으로 상정하면서, 『알라스터 또는 고독의 정령』에서 화자는 “오랫동안 잊혀진 수금”(A 43)처럼 자연의 정령을 기다렸고, 「초감각적인 미에 부치는 찬가」에서도 자연의 정령인 “미의 정령”이 찾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현명한 수동성”을 보여주었다. 이제 「서풍에 부치는 송시」에서는 셸리가 적극적으로 자연의 정령을 부른다. 능동적으로 자연과 관계 맺기에 나서는 것이다. 이 자연의 정령은 필연성이다. 셸리에게 필연성은 “세상의 어머니”이며, 그것은 자연에 내재하는 정령이다(“Spirit of Nature! all-sufficing Power”/ “Necessity! thou mother of the world.” *Mab* VI 197-198). 그런데, 홀바흐에게 있어서 “물질과 필연성은 동일하다. 이러한 필연성은 세상의 어머니이다”(Cameron 재인용 430). 홀바흐의 이러한 입장은 필연성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모든 현상을 물질의 작용의 결과로 판단하고, 또 자연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기계론적 유물론자의 태도이다. 셸리는 홀바흐와 달리, 필연성을 물질 그 자체가 아닌, 물질에 스며드는 정신적 힘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셸리의 자연관은 기계적인 유물론과는 차이가 있다. 셸리는 그 자신의 방식으로 필연성 개념을 정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상적인 사회수립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의 표명이다.

「서풍에 부치는 송시」는 서풍을 불러내면서 시작하는데, 1연에서부터 셸리는 “거친 정령”인 자연의 정령, 즉 필연성을 파괴자이며 보존자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필연성으로부터 양면성을 인식해냄으로써 그는 온전한 세상을 향한 그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금 그 앞에서 죽은 나뭇잎들을 날려버리는 “거친 정령”인 서풍의 파괴력을 보면서도, 황폐감이나 슬픔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음 봄에 대지에 찾아올 회복과 평화를 기대한다. 현재의 파괴자의 모습에서 미래의 소망을 지키는 보호자의 모습을 읽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셸리의 적극적인 인식능력이다.

... 그것들은 저마다 무덤 속의 시체처럼  
추운 그곳에 몸을 낮추고 누워있다가, 마침내  
그대의 하늘색 누이 봄이 꿈꾸는 대지 위로

클라리온을 불면, (양떼처럼 대기 속에서 먹고 자라도록  
향기로운 꽃봉오리를 몰아대면서)  
살아있는 색조와 향기들로 들관과 언덕을 채우리라:

거친 정령, 그대가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  
파괴자이며 보호자여, 들어주오, 오 들어주오!

... where they lie cold and low,  
Each like a corpse within its grave, until  
Thine azure sister of the Spring shall blow

Her clarion o'er the dreaming earth, and fill  
(Driving sweet buds like flocks to feed in air)  
With living hues and odours plain and hill:

Wild Spirit, which art moving everywhere;  
Destroyer and Preserver; hear, O hear! (Ode 7-14)

지금 그 앞에서 거친 서풍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연의 정령은 파괴자이다. 하

지만, 그것이 추운 겨울 침실로 물고 간 씨앗들은 죽지 않고 몸을 낮추고 추운 겨울을 견디다가, 봄이 되면 봄바람에 의해서 다시 새싹들을 움트게 할 것이다. 현재 파괴자인 서풍은 봄이 되면 새싹들을 움트게 하는 봄바람이 된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연의 파괴력 앞에서 황폐감이 아닌 경외감을 느낄 수 있다. 셸리는 총 5연으로 되어있는 이 시의 1연에서 3연까지를 서풍에 의해서 파괴되어가고 있는 자연물들에 대한 묘사로 할애한다. 이러한 시도는 자연의 정령의 파괴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풍은 노랗고, 까맣고, 희멀겁고, 병 걸려 죽은 나뭇잎들을 쓸어버린다(Ode 4-5). 또한 아득한 수평선 끝에서 드높은 창공까지 수증기 지붕을 만들어 폭우를 준비하고, 파도를 심하게 출렁이게 한다.

... 그대, 저물어가는 해의  
만가여, 이 저물어가는 밤이  
그대가 응결된 수증기의 힘을 모아 만든  
어떤 거대한 무덤의 궁륭이 되리라

그리하면 단단해진 대기로부터  
검은 비와, 번갯불과, 우박이 터져 나오리라. 오, 들어주소!

... Thou Dirge

Of the dying year, to which this closing night  
Will be the dome of a vast sepulchre,  
Vaulted with all thy congregated might

Of vapours, from whose solid atmosphere  
Black rain and fire and hail will burst: O hear! (Ode 23-28)

이 시는 태풍이 몰고 오는 바람이 가을비를 쏟아부을 수증기를 모으고 있던 날에 쓰여졌다. 셸리는 지금 비를 머금은 서풍이 불어대는 가을 속에 서서, 검은 비와 번개와 우박을 터뜨릴 에너지를 품고 있는 서풍을 느끼고 있다. 셸리가 서



풍의 강력한 파괴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서풍의 파괴력을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앞에 놓인 세상의 모순과 무질서들을 파괴할 에너지를 갈망한다. 셀리는 인간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산업자본주의의 부상에 반대하였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기계화된 인식능력과 그것에 따른 인간의 감성이 타락하는 것에 저항하면서 그것의 회복을 시도했다. 따라서 그가 한 해 동안의 세상의 묵은 것들을 파괴해버리는 서풍의 강력한 힘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열망이다. 그런데 그는 서풍이 그를 “파도, 나뭇잎, 구름처럼 들어 올려 주”기를 탄원한다. 서풍이 그를 다른 자연물처럼 파괴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왜 일까?

내가 낙엽이라면 그대가 실어 갈 텐데  
 내가 빠른 구름이라면 그대와 함께 날아갈 텐데,  
 그대의 힘 밑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대만큼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대의 힘의 충동을 나누는 파도라면,  
 오 제어할 수 없는 이여!  
 만일 내가 소년기에 있다면 그대 하늘 방랑길의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면만, 하늘을 나는 그대 속도를  
 앞지르는 일이 한낱 꿈으로만 보이지 않았던  
 그때처럼,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으리.  
 오, 나를 파도, 나뭇잎, 구름처럼 들어 올려주소!  
 나는 인생의 가시밭에 쓰러지네! 피를 흘리네!

시간의 무거운 짐이 그대와 똑같던 이를 사슬 채워  
 굴복시켜버렸다: 길들일 수 없고, 재빠르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

If I were a dead leaf thou mightest bear;  
 If I were a swift cloud to fly with thee;  
 A wave to pant beneath thy power, and share

The impulse of thy strength, only less free  
 Than thou, O Uncontrollable! If even  
 I were as in my boyhood, and could be

The comrade of thy wanderings over Heaven,  
 As then, when to outstrip thy skiey speed  
 Scarce seemed a vision: I would ne'er have striven

As thus with thee in prayer in my sore need.  
 Oh! lift me as a wave, a leaf, a cloud!  
 I fall upon the thorns of life! I bleed!

A heavy weight of hours has chained and bowed  
 One too like thee: tameless, and swift, and proud. (Ode 43-56)

죽은 나뭇잎, 구름과 파도는 자연에 속해 있어서 자연의 정령의 힘을 공유한다. 그것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이기심이 없이”, 자연의 정령을 따라서 움직인다(Welburn 162). 반면에 쉐리는 지금, 이제까지의 “시간의 무거운 짐”에 속박되면서 자연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통합된 존재의식을 느꼈던 소년 시절과 달리, “이 세상의 어머니”로부터 벗어나서 그 자신의 독립된 정체성을 추구해왔다. 이제 그는 자연과의 일체감을 잃어버린 현재의 그의 상태를 서풍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연의 정령의 힘을 빌어서 파괴하고, 소년 시절에 느꼈던 감성, 즉 존재의 통일성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회복된 감정을 통해서 자연과의 일체감을 시도하고 있다. 자연의 정령에 의해 추운 겨울 침실로 끌려간 씨앗들이 몸을 낮추고 추운 침실에 누워있었던 것처럼, 그도 그것들이 보여준 그런 낮은 자세를 취한다. 봄이 되면 봄바람에 의해서 다시 새싹들을 틈워내는 씨앗들처럼, 도덕적 상실감과 공동선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세상에 그 자신이 자연의 정령의 도움을 받아 인간성의 회복을 불러오고 싶어서이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의 잎들이 숲의 나뭇잎처럼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새로운 탄생은 한 존재의 파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의 정령의 수급이 되고자 한다. 그런데 자연의 정령의 수급이 되고자 하는 「서

풍에 부치는 송시」의 이러한 탄원은 『알라스터 또는 고독의 정령』의 화자의 간절한 기도가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알라스터 또는 고독의 정령』에서 화자는 자연의 정령의 수금(수금)이 되어 자연과 인간의 통합적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바라지만, 자연의 정령의 실체를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탐색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 그것은 “은밀한 성소”에 있고, 그림자로, 어두운 발자국으로만 존재하는 “고독의 정령”이었다(A 21). 그것의 “깊은 신비”는 선명하게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A 23). 셀리가 『알라스터 또는 고독의 정령』에서 화자와 ‘시인’을 병치시키고, 서문을 또 하나의 화자로 설정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면, 「서풍에 부치는 송시」에서는 『알라스터 또는 고독의 정령』에서 어렵게 인식되기 시작한 자연의 정령의 정체(정체)가 명확하게 제시된다. 그것은 파괴자이며 보존자이다. 셀리는 시의 서두에서부터 그가 자연의 정령의 속성을 파악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서풍에 부치는 송시」에서는 『알라스터 또는 고독의 정령』의 화자의 열망이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대기의 중얼거림과, 숲과 바다의 동태와, 살아 있는 존재들의 목소리와, 밤과 낮이 엮인 찬가와, 인간의 깊은 가슴과 화음을 이루기를”(May modulate with murmurs of the air, /And motions of the forests and the sea,/And voice of living beings, and woven hymns/Of night and day, and the deep heart of man.(A 45-49)) 갈망하는 『알라스터 또는 고독의 정령』의 화자의 기원은 「서풍에 부치는 송시」에서 “겨울이 오면, 봄이 저 멀리 있”지 않다는 “예언의 나팔”로 울린다. 삶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서풍에 부치는 송시」에서 다양한 관점이나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셀리 그 자신이 전면으로 나서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셀리는 「서풍에 부치는 송시」에서 그가 직접 시에 등장해서 선명한 목소리로 그 자신의 열망과 그 열망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피력한다. 그는 자연의 정령의 수금이 되고자 하지만, 그의 정체성을 자연의 정령에게 내어주지는 않는다. 그는 자연의 정령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나를 그대의 수금으로 삼아라, 바로 저 숲과도 같이!  
 나의 잎들이 숲의 나뭇잎처럼 떨어진들 어떠하리!  
 그대의 힘찬 화음들이 엮어내는 소동이

숲과 나에게서 슬픔 속에서나마 감미로운  
 깊은 가을의 곡조를 얻어 내리라. 그대, 거친 정령이여,  
 나의 정령이 되어주소! 그대 내가 되어주소, 격렬한 이여!

나의 죽은 생각들을 우주 너머로 몰아가 주소!  
 새로운 생명을 재촉하는 시든 잎들처럼!  
 그리고 이 시의 주문을 따라,

흩뿌려 주소, 꺼지지 않은 화로에서 나오는  
 재와 불꽃 같은, 나의 말들을 인류에게!  
 나의 입술을 통해 깨어나지 않은 대지에

예언의 나팔이 되어주소! 오 바람이여,  
 겨울이 오면 봄이 저 멀리 있을까?

Make me thy lyre, even as the forest is :  
 What if my leaves are falling like its own  
 The tumult of thy mighty harmonious

Will take of from both a deep, autumnal tone,  
 Sweet though in sadness. Be thou. Spirit fierce,  
 My spirit! Be thou me, impetuous one!

Drive my dead thoughts over the universe  
 Like withered leaves to quicken a new birth!  
 And, by the incantation of this verse,

Scatter, as from an unextinguished hearth  
 Ashes and sparks, my words among mankind!  
 Be through my lips to unawakened Earth

The trumpet of a prophecy! O Wind,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Ode 57-70)

셀리는 자연의 정령에게 그의 정령이 되어달라는 주문을 넘어서서 그것이 셀리 그 자신이 되라고 주문한다. 즉 그의 격렬함과 그의 에너지와 삶이 셀리 그 자신의 것이 될 수 있게 하고 그의 메시지가 셀리 그 자신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자연의 정령에게 완전히 기대어 그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호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셀리의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셀리는 그가 그토록 만나기를 열망했던 자연의 정령을 만났음에도, 그것의 영역에 흡수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숲의 나뭇잎처럼 떨어”져 썩어도 그는 여기 유한한 인간의 세상에 남기를 바란다. 그의 관심은 자연의 정령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이고, 그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원하고 있는 것은 인간 세상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자연과의 통합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지만, 자연의 정령과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그 자신을 수급으로 설정하는 태도는 셀리의 성숙한 인식을 반영한다. 그것은 다른 아닌 블레이크(William Blake)식의 ‘순수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거친 후 변증법적으로 달성된 ‘다시 얻은 순수의 세계’에 셀리가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셀리가 시도하는 통합된 존재의식은 그래서 소년 시절에 가졌던 그것과 차이가 있다. 「초감각적인 미에 부치는 찬가」에서 “미의 정령”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법”(Hymn 84)을 알게 된 셀리는 이제 「서풍에 부치는 송시」에서 인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시인의 임무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 세상을 향한 그의 이상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때때로 담아냈던 이전의 시들을 “죽은 생각”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회복에 대한 시작을 「서풍에 부치는 송시」가 담당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시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인류에게” “예언의 나팔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셀리는 회복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는 매체이다. “시인은 영감의 비의를 해설하는 사제이고, 미래상이 현재에 던지는 거대한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A Defence of Poetry’ VII 140)이다.

한편, 셀리는 그의 시에 쓰여진 말들은 “꺼지지 않은 화로에서 나오는 재와 불꽃” 같다고 말한다. “창조하는 마음은 꺼져가는 석탄” 같아서 시인이 처음에 품었던 상념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다(‘A Defence of Poetry’ VII 135). 그래서 시는 공동선에 대한 최고의 사명감을 가진 시인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선한 순간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A Defence of Poetry VII 136), 창조하는 순

간의 순수함과 강렬함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인은 창조 의 힘이 오가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 시인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의 시가 세상의 회복을 예언하는 나팔이 되기를 원하지만, 시인은 자연의 정령의 메신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셸리는 자연의 정령과 상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인간은 일종의 악기이고, 그것이 안팎의 인상의 흐름에 흔들리는 모습은 아이올로스의 수금 위를 수시로 변하는 바람이 불 때 수금이 수시로 변하는 선율을 연주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에는, 그리고 아마 감정을 가진 모든 생물 속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고, 수금과는 다르게 작용하여 선율을 연주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겨난 소리나 움직임에 낚는 인상이 내면에서 그 소리나 움직임을 조절하여 화음도 만들어낸다.

Man is an instrument over which a series of external and internal impressions are driven, like the alternations of an ever-changing wind over an AEolian lyre, which move it by their motion to ever-changing melody. But there is a principle within the human being, and perhaps within all sentient beings, which acts otherwise than in the lyre, and produces not melody, alone, but harmony, by an internal adjustment of the sounds or motions thus excited to the impressions which excite them. ('A Defence of Poetry' VII 109)

셸리는 수시로 변하는 바람에 맞춰 수시로 변하는 선율을 연주하는 수금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그는 수금과 달리 인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시인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수금의 상태로만 머물러있지 않는다. 자연의 정령과 조화로운 관계설정을 통해서, 회복된 세상에 대한 비전 제시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의 시가 석탄의 “재와 불꽃” 같지만, 셸리 그 자신이 자연의 정령을 파괴자이면서 동시에 보존자로 인식하는 한, 그 석탄의 화로는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시와 시인, 그리고 인간의 실존에 대한 냉철하고도 성숙한 인식이 잘 드러난 시가 바로 「서풍에 부치는 송시」이다. 이 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만 있는 에덴동산이 아닌, 탄생과 죽음,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유한한 인간 세상에 대해, 그리고 인간일 수밖에 없는 시인에 대한 성숙한 인식을 보여주는 “깊은 가

을의 곡조”이다. 설익은 열정만으로 활활 타오르는 여름의 곡조가 아니기에 「서풍에 부치는 송시」는 역설적으로 현실적인 실천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셀리는 대책 없는 이상주의자도, “아름답지만 헛된 천사”도 아니다(Arnold 35).

### III. 결론

「서풍에 부치는 송시」에서 셀리는 그 자신이 직면한 슬픈 현실 앞에서 시를 통한 회복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자연과 통합된 관계를 통해 인간 세상의 도덕적·정치적 회복을 꿈꾸는 그의 열망은 그의 현실 인식과 조화를 이루면서 펼쳐지고 있다. 셀리는 도덕적 회복이 정치적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 하에, 인간 본연의 감성 회복을 주도하는 것을 시인의 우선적인 역할로 규정하였고, 짧은 생애 동안 일관되게 이러한 시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그의 시 전반에는 시인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들이 녹아 들어있다. 시인의 정체성에 대한 그의 고민이 명확하게 해결되고 있는 시가 바로 「서풍에 부치는 송시」이다. 셀리는 도덕적 회복을 주도하는 “예언의 나팔”로 시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면서, 그의 시가 인간 본연의 감성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은 자연의 정령의 법칙인 필연성에 대한 그의 정리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필연성의 원칙에 의해,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이러한 통칭들을 적용하는 사건들이 우리 고유의 독특한 존재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우주 속에 선도 악도 없다는 것을 배운다.

We are taught, by the doctrine of Necessity, that there is neither good nor evil in the universe, otherwise, than as the events to which we apply these epithets have relation to our own peculiar mode of being. (*Notes To Queen Mab* VII 146)

필연성은 인간의 독특한 존재 방식과 관련이 있다. 즉, 인간이 필연성을 파괴자로 인식하면 파괴자이고, 보호자로 인식하면 보호자이다. 셀리는 필연성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시인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그는 필연성을 시인의 자유의지와 책임감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그것은 『뱀여왕』을 거쳐 『몽블랑』에서 ‘힘’(power)으로 다시 나타나며, 『초감각적인 미에 부치는 찬가』에서 ‘미의 정령’과 ‘사랑’으로, 『서풍에 부치는 송시』에서 ‘거친 정령’으로,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에서 ‘데모고르곤’으로, 그리고 마지막 시인 ‘삶의 개선 행렬’에서 ‘삶의 전차’로 나타난다. 셸리는 초기부터 마지막 시까지 계속해서 필연성을 고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인의 역할에 대한 숙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시들 중에서 필연성에 대한 개념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가 바로 『서풍에 부치는 송시』이다. 자연의 정령인 필연성에 대한 셸리의 숙고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의 열망에 공감하게 된다. 그 앞에 붙어닥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면서도, 과학의 시대에 저항하고, 시와 상상력으로 세상의 회복을 꿈꾸었던 셸리의 열망 말이다. 셸리의 그러한 열망은 당시의 낭만주의 시인들의 공통된 열망, 즉 시대 정신이었다. 셸리는 그의 시대 정신에 충실한 시인이었다.

### Works Cited

- Amjad, Fazel A. "Natural and Ethical Necessity in Shelley's Epistemology." *Keats-Shelley Review* 17.5(2003): 98-113. Print.
- Abrams, M. H.. *The Mirror and the Lamp: Romantic Theory and the Critical Tradition*. Oxford: Oxford UP, 1979. Print.
- Arnold, Matthew. *Essay in Criticism: Second Series*. London: Macmillan, 1905. Print.
- Baker, Carlos, *Shelley's Major Poetry: The Fabric of a Vision*. London: Oxford UP, 1948. Print.
- Barfield, Owen. "Symptoms of Iconoclasm". *Romanticism and Consciousness: Essays in Criticism*. Ed. Harlod Bloom. New York: Norton, 1970. 41-46. Print.
- Bloom, Harold. *Shelley's Mythmaking*. New York : Cornell UP, 1969. Print.
- Cameron, Kenneth Neil. *The Young Shelley: Genesis of a Radical*. New York, Collier Books, 1950. Print.
- Gingerich, Solomen F., 'Doctrine of Necessity versus Christianity', *PMLA*, 33, 1918. 444-73. Print.



- Grabo, Carl Henry. *The Magic Plant: The Growth of Shelley's Thought*.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936. Print.
- Heyck, T. W., *The Peoples of The British Isles, A New History from 1688 to 1870 vol.2*.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1992. Print.
- \_\_\_\_\_. *The Transformation of Intellectual Life in Victorian England*. London and Sydney: Croom Helm; New York: St. Martin's P, 1982. Print.
- Ingpen, Roger and Peck, Walter Edwin. eds. *The Complete Works of Percy Bysshe Shelley, 10 vols*. Julian Edition. London: Ernest Been, 1926-30. Print.
- Kim, Chul Soo. *The Study of English Romantic Poetry*. Gyeongbuk: Gyeongbuk UP, 2005. Print.  
 [김철수. 『영국 낭만시 연구』. 경북: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5.]
- King-Hele, Desmond. *Shelley: His Thought and Work*. London: Macmillan P, 1984. Print.
- Welburn, Andrew J., *Power and Self-Consciousness in the Poetry of Shelley*. London: Macmillan P, 1986. Print.
- White, Newman Ivey. *Shelley*, 2 vols. New York: Alfred A. Knopf, 1940. Print.
- Wordsworth, William. William Wordsworth, ed. Stephen Gill, Oxford: Oxford UP, 1984. Print.

이일재 (전북대학교 / 강의초빙교수)

주소: (54896)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이메일: ijlee20@daum.net

논문접수일: 2021. 09. 30 / 심사완료일: 2021. 11. 03 / 게재확정일: 2021. 11. 03